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新聞代 (朝夕刊) 一個月 金壹圓 ... 廣告料 ... 發行所 京城 朝鮮日報社

社說 怪常한入學許可條件 —晉州高普의沒知覺—

一

天下有足下英雄之淚、短壯士之氣者、窮是也。우리가 窮을 說去하고 窮을 說來함에 恒常 그곳에 英雄의 눈물이 잇고 壯士의 氣力을 沮喪하는바 잇슴을 發見하나니 이를 또 長提할 必要가 업는것도 갓다 그러나 直接 事物에 觸하면 感興이 업슬수 업나니 窮에 關한 問題도 그것이 새 옷을 입고 새 形態로써 우리 압헤 나오는 때에는 우리에게 新解한 感興을 주지 아니할수 업게 된다

二

今番에 慶尙南道 晉州郡에서 一怪常事가 發生하야 우리로 하여금 窮에 關한 問題를 또 한번 생각하게 한다 晉州高等普通學校 入學試驗에 優秀한 成績으로 合格된 學生은 資産이 千圓에 不過하다는 理由로써 無慘하게 入學拒絕을 當하엿다 그 學生은 校門에서 放聲大哭하엿다 그 어린 學生의 흘린 뜨거운 눈물은 누가 이를 씨서줄가? 資産이 업스면 通學을 繼續할 希望이 업는 學生은 처음부터 除外하는것이 當然하다는 것이 學校側의 主張하는 理由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가튼것은 그들의 理由이지 入學者側으로 보아서는 何等의 妥當性을 가지지 아니한것이니 學校當局이 露骨的으로 이와가튼 態度를 取하엿다는것은 오늘날 制度下에 잇서서 생각한다 하더래도 到底히 容認할수 업는 罪惡으로 보지 아니할수 업스니 그 沒知覺함은 참 可笑롭고 참 可憎하다

三

晉州高普에서는 最少限度로 四五千圓이란 金額이 必要不可缺의 條件이라 한다 그럼으로 限업는 怨恨을 품고 도라간 學生이 多數라고 한다 우리는 晉州高普當局이 四五千圓이라는 條件을 必須로 하엿는가 아니하엿는가를 무를 必要는 업다 그러나 七百圓에 不過하는 資産을 가젓다 하야서 入學을 拒絕한것만은 事實로 알수잇나니 그러하다면 그보다 多額의 資産을 必須條件으로 할것은 勿論이겟다 晉州高普當局은 果然 一片의 人類的 良心이 남어잇는가? 教育者라 하는것은 이러하여야 할것이라는 말인가? 그들의 無知함은 참으로 可憐하다 卿等이 歷史를 펼처볼 때에 偉人達士가 貧賤한 가운데서 만히 出來하엿다는것을 보지 아니하엿던가? 밥을 먹어야 學校에 가고 옷을 입어야 學校에 가고 學用品이 잇서야 學校에 가고 또 授業料를 내여야만 學校에 갈수잇는 故로 資力이 不足한 사람은 大多數는 自然히 通學을 繼續하지 못하고 中途에서 退學하는 現過가 만히 잇슬것이다

四

그러나 이것은 現下 社會制度下에 잇서서의 거의 自然的 制限이라고 볼수 잇는 바이니 그에 對하야 怨恨하더라도 問題는 畢竟 難解의 境域으로 들어갈것이다 그러나 晉州高普의 今番에 取한 非人道的 態度는 조곰 有意한 사람이면 到底히 容恕할수 업는 罪惡인 때문에 黙認하지 아니하엿다는 點으로 보아서 오늘날 社會에 잇서서도 그 非道를 鳴鼓而攻之할 必要가 잇는 것이다 그러나 晉州高普當局은 『당신 教育者들도 그러함으로 우리도 그리하엿노라』고 抗辯하려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대들의 同類를 同時에 彈劾하노라』고 對答하겟다

輿論漸益激昂 太沽事件의非는 日本에在하다는 各團體의宣言通電

(北京十七日發) 議定書調印國 最後通牒에 對한 中國輿論의 激昂은 益益 激甚하야 十七日 國民黨北京支部、國家主義聯盟、日本留學生團體等의 各團體는 各各 緊急會議를 開催하고 宣言或은 通電을 發하엿는데 其 主意는 全部 太沽事件의 非는 日本에 잇스나 그러나 日本은 列國을 教唆하야 此擧에 出하게 한것이라고 推測하야 如斯한 無理한 要求는 政府로서 斷然히 放棄할것이라고 主張한다 尙且 在留米人의 一部는 十七日 代表를 選擧하야 米國公使와 會見後 公使側에서 取한 措置에 反對意見을 陳備하엿더라

學生團千餘名 守備兵과衝突 死傷者三十三名

(北京十八日發) 當地學生團은 今日 列國의 最後通牒에 對하야 外交部의 回答으로써 政府의 態度가 軟弱하다 하야 此에 詰問을 하기 爲하야 學生 一千餘名은 執政府에 몰려들어가다가 守備兵과 衝突하엿는데 守備兵은 不得已 發砲한 故로 學生側에는 即死者 十七名 負傷者 十六名을 내이어 大混亂을 極하엿더라

中政府回答圓滿 列國側武力行動中止

(北京十八日發) 外交部는 議定書調印國의 十六日附 最後通牒에 對하야 本日 回答하엿는데 右內容은 列國側으로서 滿足할만한 것임으로 列國은 武力行動을 中止할터이더라

外交團緊急會議

(北京十八日發) 外交團은 外交部의 回答을 受하고 緊急會議를 開하엿더라

國民大會不穩 ◇……列國公使館은 各國駐屯兵으로嚴重警戒

(北京十八日發) 時局問題國民大會는 午後 一時부터 開會되엿는데 不穩한 空氣가 漲溢함으로 各公使館은 萬一을 念慮하야 各國駐屯兵으로써 嚴重히 警戒를 加하더라

團匪最終議定書 精神을遵奉한다는 鹿鍾麟氏의對英艦長回答

(天津十七日發) 鹿鍾麟氏는 十七日 太沽艦隊司令官으로부터 英國軍艦艦長에게 口答으로 左의 答辯을 하게 하엿더라

一、國民軍은 一九〇一年 團匪最終議定書를 遵奉함
二、太沽防禦設備는 奉天海軍에 對한 必要上 不得已한 것이다
三、列國이 太沽에서 奉天軍艦의 攻擊에 對하야 中立의 保障을 하면 船舶航行의 障碍가 될 一切設備를 自進하야 撤去하겟다
四、外國船舶臨檢은 便宜의 方法을 講할터이다 例컨대 英國船은 英國人、日本船은 日本人으로 臨檢케 할 手段을 取하겟다

以上과 如히 鹿鍾麟氏가 穩和한 態度에 出한 것은 馮玉祥氏의 訓令에 依한 것이라고 解하더라

議院法改正은 修正後通過?

(東京電) 貴族院의 豫算審查 期限設定案에 對하야 有耶無耶에 處置되리라는 說도 잇스나 研究會某常務의 談에 依하면 前議會에 貴族院은 一致하야 期限設定의 原則을 承認하엿슴으로 今般 根本的 反對를 主張함은 時期를 失하겟고 又 同案審議는 事實上 半日만 하면 審議를 終了할터이오 有耶無耶에 處置할 事는 업슬터임으로 結局은 延長期間을 附할 修正案에 對하야 各會派間에 交換한 後 決定되리라고 信하더라

勞農總領事 東京發向

京城駐在 勞農聯邦總領事 『시아노프』氏는 夫人同伴、東京大使館의 用務를 帶하고 十九日 午前十時 京城驛을 發하야 約一週間 豫定으로 渡東할터이더라

元電問題로 再次會商 何等의解決도업고말어

元山에 對한 電氣料金引下問題에 關하야 去十三日 交涉委員 金鎭淵氏 外 六七人과 電氣會社側 殷濱社長 外 二三重役이 商議樓上에서 會見한 結果 殷濱水電社長으로부터 聲明하기를 『電氣料金引下問題에 關하야는 最近 會社에서도 相當히 考慮한 것이고 自己는 機會잇슬 때에 이 뜻을 聲明하엿섯다 그러나 此는 自己一個人의 意見이나 引下라도 可能할는지 不能할는지 調査한 後가 아니면 確答할수 업스나 못처럼 本日 雙方의 會見도 잇섯슨즉 될수잇는대로 確定案을 發하려고 調査도 急히 하고 또 重役과도 相議하야 저우 成案을 得하야 잇슴으로 書面으로 回答하라면 大임니다 其 引下의 要旨는 電氣料金은 一燈에 金三錢 計量器貸付損料는 四割引 此의 實行期는 料金改正認可申請을 監督官廳에 提出하야 認可된 翌日부터 施行하겟노라』 하야 各委員과 電氣會社側과의 質問應答이 잇섯스나 何等의 具體的 案이 成立되지 못하야 十六日 또 商業會議所樓上에서 繼續開會하고 意思의 交換이 잇섯다더라 (元山)

六道溝夜學校의 慶賀할卒業式 十二時勞働하는生徒로서 三名의皆勤生이더욱稀貴

安東縣 六道溝에 在留同胞로 組織된 共濟會에서 一九二二年 三月十五日에 夜學校를 創立하고 爾來 熱心教育한 結果 今日에 至하야 內外國人의 讚助와 同情이 多大하야 校運이 日益旺盛하며 晝學生이 七十六人이오 夜學生이 三十五人 中 去十五日 第二回卒業式에 二十名이 好成績으로 卒業證書를 受하얏다는데 其中 皆勤三人을 出한것은 每日 十二時間 勞働하는 生徒로는 稀有한 事이며 十五日은 即 創立紀念日임으로 趣味津津한 餘興도 잇서 實로 六道溝 在留同胞社會의 一大盛事이엇스며 同校長은 多年 滿洲에서 活動하는 金道益氏요 校舍는 煉瓦洋館으로 海外勞働同胞의 血汗으로 結晶된 紀念塔이 된다더라 (安東縣)

安城市區改定과 期成會臨時總會 ◇……積極的進行決議

果然 安城市區改定案에 對하야 全市民들은 自己네의 所有土地建物을 無代犧牲키로 昨年 九月十三日 前記 期成會創立總會席上에서 決議하얏고 또는 各自 署名捺印까지 하엿섯스나 建物毀撤期가 迫頭한 今日에 至하엿슴으로 同會에서는 이를 一層 더 遂行키 爲하야 諸般을 具體的으로 決議코자 臨時總會를 去十四日 場基里 共勵會館內에 開催하고 司會 李正鎬氏로부터 郡廳舍新築及移轉에 關한 件과 道路幅員及土木管區設計에 關한 件과 京南鐵道延長線 市內貫通에 關한 件과 地方費補助에 關한 件 等을 一一히 說明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하엿다더라

◇決議
一、今回 實地測量에 伴하야 要하는 土地建物을 無代寄附 正式承認의 件
二、土地建物에 損害가 입시 市場擴張의 恩典을 蒙하는 者는 此에 相當한 金額을 寄附할 일
但、損害額이 少한 者는 委員會의 要求에 依하야 相應한 金額을 捐助할 일
三、下水口費不足額及新設道路工事費補助申請에 關한 件
四、第一期線은 自東薬里 至魚市場과 自金融組合前 至米市場 貫通으로 하고 新設道路及其他線은 第二期로 하야 來年度에 工事를 實行할 件 (安城)

縣洞勞青創立

英陽郡 英陽面 縣洞에서는 아즉까지 何等 勞働團體가 업서 一般이 遺憾이던바 去十四日 當地 培英夜學堂에서 勞働靑年創立總會를 開催하얏는데 會員 五十餘名이 모여 全文十條의 會則을 通過하고 左記議事와 任員選擧한 後 京城靑年會 執行委員 趙致基氏의 祝辭와 萬歲三唱으로 閉會하얏다더라

◇決議
一、會員中 吉凶事가 有할時는 二十錢以上의 扶助金을 贈與할 事
二、會員中 疾病期에 罹病하야 失農窮境에는 會員一同이 助力하야 作農할 일
三、勞働夜學을 後援할 일
◇委員
常務部 金右培 南洛鎬 文藝部 安圭漆 禹相佑 財務部 禹鍋旋 (英陽)

中東省 青年聯合大會

江南朱家屯에서 中東線靑年聯合會에서는 去二日 寧古塔江南朱家屯에서 第二回定期大會를 開하고 委員改選이 잇슨 後 左記事項을 決議하엿다더라

◇決議
一、今年度豫算成立에 關한 件
一、北滿青總에 關한 件
一、農民運動에 關한 件
一、少年運動에 關한 件
一、婦人運動에 關한 件
◇委員
田承雨 姜化仁 金多恕 李振東 鄭泰鉉 李帆世 金永世 (安東縣)

襄陽邑에서도 東海鐵道運動 期成運動聯盟會組織

去十一日 襄陽邑 尋常小學校內에서 朝鮮東海岸線鐵道期成運動聯盟會 準備會를 組織하고 左記準備委員을 選擧하엿다는데 創立總會는 來二十一日에 開催한다더라

◇準備委員
金翼濟 朴英球 安承稲 浦襄憲 吉井新吉 松原繁太郞 李弘根 戶田榮 熊谷滕市 金炳渙 (襄陽)

日月青年이 無極教別神說 絕對反對決議

去十五日 英陽郡 日月面靑年會 臨時總會에서는 左記事項을 決議하엿다더라

◇決議
一、會館買收에 努力할 일
一、英陽邑別神說은 絕對反對할 일
一、月一回 研究班과 月四回 討論班을 設置하고 푸로文庫 實現에 努力할 事
一、無極教絕對反對에 努力할 일
一、面統計表作成의 件
一、地主調査警告의 件
一、報道機關擁護又는 警告等에 努力할 일 (英陽)

沙里院各校募生

沙里院 各公私立普通學校에서는 左와 如히 學生을 募集하리라고

◇德盛學校 募集定員 男女合一學年七十名 各學年補缺生若干名 出願期日 三月二十六日까지
◇公立普通學校 募集定員 男子部女子部各一學年百八十名 各學年補缺生若干名 出願期日 三月二十日
◇西鋼公立普通學校 募集定員 一學年男子部八十名 內女子二十名 出願期日 三月二十一日
◇鳳岩幼稚園 募集定員 五十名 年齡 滿四歲부터 六歲까지 出願期日 四月二日까지
◇德盛幼稚園 募集定員 五十名 年齡 滿四歲부터 六歲까지 出願期日 四月二日까지
詳細는 一切 當校又는 當園에 問議할 事 (沙里院)

光州五團體會館 須奇屋町에移轉

歷史的 使命을 다하기 爲하야 決河의 勢로 最近에 組織된 光州精米勞働組合、光州鐵工組合、光州印刷職工組合、光州店員靑年會의 五團體는 事務所를 適當한 位置가 無하야 不便이 莫多하던바 近日 光州 須奇屋町 一六七番地에 聯合事務所를 設置하기로 되야 近近 移轉執務하리라더라 (光州)

固城革進會 綱領發表와 講座의開催

固城思想團體 革進會에서는 去十五日 執行委員會를 東亞日報固城支局에 開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하얏다더라

◇綱領
一、우리는 現實에 立脚한 大衆의 實際的 要求에 應하야 終局의 理想을 向하고 驀進하기를 期함
一、우리는 大衆運動의 部門이 되는 勞働農民靑年女性衡平運動의 智的 敎養과 階級的 訓練에 注力하며 經濟問題에 邁進하고 科學思想普及을 期함
一、우리는 界線이 不分明한 運動團體를 整頓하야 秩序的으로 進行하기를 期함
一、우리는 우리의 主義主張에 對하야 絕對로 讓步를 말며 正義의 反逆者는 積極的으로 此를 撲滅할것

◇決議
一、全固城社會運動者大會開催에 關한 件
一、月例會에 關한 件
一、社會運動方向에 關한 件
一、會員懇親會開催에 關한 件
一、女性教養에 關한 件
一、女性團體組織促成에 關한 件
一、反宗教運動에 關한 件
一、臨時講座開設에 關한 件

臨時講座 十六日로부터 五日間 固城靑年會館에서 臨時講座를 開催한다는데 階級의 現在의 慘憺한 狀態에 處하여 잇는 事實을 網羅하야 階級意識促成에 對한 熱辯이 만흔바 多數 來聽하기를 바란다고 (固城)

江華幼園 期成會委員會

江華幼稚園期成會에서는 去十五日 江華中央靑年會館內에 委員會를 開催하고 不遠間 開園될 때에 對하야 左記와 如히 決議하얏다더라 (江華)

◇決議
一、期成會員募集締切期日은 三月末日로 함
一、마-크 考案委員은 金以玉 朴淳寶 兩氏로 함
一、總會準備委員은 徐鳳俊 金玉 方根培氏로 함
一、總會日은 來四月十日 午後一時로 하고 場所는 江華幼稚園으로 함
一、期成會各部委員은 其間實地活動한 것을 綜合키 爲하야 三月三十日 午後一時에 新門里 朴淳寶家에 集合할 일

新名稱은 北南農民組合

尙山勞農合會改革

去四日 尙山郡 上南面 吉川里 勞農合成會 第一回定期總會의 諸決議는 如左하다더라 (彥陽)

◇決議
一、會名變更에 關한 件 勞農合成會를 『北南農民組合』으로 改稱할것
一、綱領과 規約에 關한 件 綱領과 規約을 修正하되 執行委員에게 一任할것
一、執行委員改選에 關한 件 執行委員 十二人을 選擧할것 金活、金鍾極、金大植、崔世權、姜永相、鄭泰均、成燾寅、徐海鍾、鄭衡洛、李泰山、李同基、李圭庚
一、郡聯盟組織에 關한 件 郡內에 散在한 農民團體와 相議하야 郡聯盟을 組織할것

醴泉記者團 去十五日發起

慶北醴泉에 잇는 朝鮮文新聞雜誌經營者諸氏들은 去十五日 當地本社支局內에 會合하야 醴泉記者團을 組織코저 發起會를 開하고 諸般事項을 討議한 結果 總會時日及準備委員을 如左히 決定하엿다더라

◇決議
一、創立總會는 本月二十一日 下午二時로 定함
一、總會場所는 當地唯一學院內로 定함
準備委員 趙鍾德 權內南 南炳台 金相起 (醴泉)

堂隅勞農青年 南靑聯에加盟

去十六日 德源郡 堂隅勞農靑年會 第一回定期總會에서는 左와 如히 委員選擧와 決議가 잇섯다더라

◇決議
一、咸南靑年聯盟에 加盟할것
二、每土曜日마다 土曜講座를 開催할것
◇執行委員
康裕鋼 朴裕秉 趙永祉 朴承模 康元鎬 朴承三 宋秉極 宋智浩 李癸鳳 朴榮錫 朴承祐 朴文秉
◇常務委員
執行委員長 康元鎬(庶務) 康裕鋼 朴文秉(教養) 趙永祉(社會) 宋秉極 (德源)

青年學院은 解散키로 固青委員決議

去十五日 固城靑年會 執行委員會에서는 左記諸項을 決議하얏는데 爾來 五個年間 經營하던 靑年學院은 不得已 解散케 됨에 對하야 一般은 매우 慨歎한다더라

◇決議
一、本會運動場을 當分間 本會에서 使用함에 障害가 업슬만한 範圍內로 固城公立普通學校에 그 使用을 許할것
一、靑年學院은 最後의 難境에 至함을 本會에서는 社會的 義務로 盡力하얏스나 維持의 良策이 업고 學院에서 修業하던 兒童은 他公私立學校에 轉學을 極力周旋할것
一、學院解散과 同時에 學院에 對한 一切會計를 淸算하기 爲하야 淸算委員 五名을 選擧할것 (崔尙許 具鍾根 全甲李 千性洛 千斗上)
一、勞働夜學新設에 關한 件 勞働農民의 文盲을 退治키 爲하야 勞働夜學을 新設하고 來四月一日부터 開學하되 會員이 義務的으로 教授할것 (固城)

主校歌劇盛況

去十四日 楊市에서 平北龍川郡 楊市教會 主日學校에서는 去十四日 同禮拜堂內에서 少年少女들이 出演한 遊戲唱歌 歌劇 『사계』(春夏秋冬) (애급의 宰相) 演說、對話、行進遊戲、바요링 並奏、舞蹈、쿵바린쓰 等은 多數會衆의 喝采를 博하얏고 特히 金仁淑 十歲少女의 『愼幼時』란 演題의 演說은 數千名 聽衆을 驚嘆케 하얏다더라 (楊市)

梁山青年定總

去十三日 梁山靑年會에서는 第十五回定期總會를 開하고 左記各項을 決議하며 다는 改選된 委員은 아래와 갓더라

◇執行委員
委員長 全赫 委員 洪基業 嚴柱泰 文莫 金甚鎬 徐尙鍵 姜在鎬
◇檢查委員
嚴柱泰 金甚鎬 全赫
◇決議
一、靑少年의 教養에 必要한 雜誌의 縱覽所를 設置하고 隨時로 討論會 講座等을 開催할 일
一、女性解放에 必要한 單行本을 購入하야 勸讀하며 印刷物을 頒布할 일
一、勞働者와 農民의 自覺을 促하는 同時에 그들의 團結하야 惡地主及惡雇主에 對抗케 할 일
一、本郡守의 良州逸史에 關한 件 (略)
一、本會七週年紀念式을 來四月十一日에 陸上運動會를 本會運動場에서 開催할 일

◇正誤 本報 第一千九百六十五號 第四面에 揭載된 馬山紫城大會 西部大勝云云은 東部大勝의 誤이기 正誤함

地方人事

▲金東勳氏 (本報茂朱支局長)는 支局用務로 各面讀者及有志訪問을 爲하야 十日豫定으로 三月十七日 發程 (茂朱)
▲金景圭氏 (本報長湖院支局顧問)는 十五日 上京、麻浦本家에서 三日間 滯在豫定
▲尹基東氏 (京專醫學士) 去五日부터 長湖院 一一五番地에서 長湖醫院 開院

◇寸鐵◇

【襄陽】 江原消息 地方課勤務 朝鮮人道屬某는 某記者에게 편지하되 『面發로 〇〇申報를 各里區長에게 購讀식히는 것은 朝鮮人假裝行爲이라』 하엿다지 그 酒隔은 可謂 如是

【公州】 ◇公普 五六年生 某某는 試驗期도 不拘하고 밤이면 酒店出入과 女子玩弄이 一手라고 讚이 嘖嘖 ◇角

【淸城】 ◇淸城勞働夜學 許可願 中 『無產兒童의 敎養』을 目的한다는 無產이란 文句에 對하야 江原道에서는 좀 더 조흔 文句로 고치라는 返還行事이 잇섯다고 無產者를 有產者라고 하야 더 조흔 文句일지

社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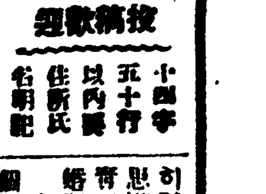
一、支局의 名稱 洪原支局
一、支局의 位置 洪原郡 朱翼面 東桑里 二四
一、支局長氏名 劉義穆
右와 如히 洪原支局에 對한 一切를 變更하엿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 照亮하소서
朝鮮日報社 白

一、支局의 名稱 朔州支局
一、支局의 位置 朔州郡 朔州面 西部洞 一一
一、支局長氏名 崔謙純
右와 如히 朔州支局을 設置하고 新聞請求及廣告由托 等 一切를 耶接交涉하소서
朝鮮日報社 白

一、支局의 名稱 咸平支局
一、支局의 位置 咸平邑內
一、支局長氏名 牟世基
右와 如히 咸平支局에 對한 一切를 變更하엿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 照亮하소서
朝鮮日報社 白

今般 本支局에서 左와 如히 局員을 任用하야 禮安面 參禮里에 駐在케 하야 事務를 取扱하오니 愛讀諸位는 以此 照亮하소서
記者 (參禮駐在) 中寓永
朝鮮日報 全州支局 白

今般 本支局記者 李東順君은 事情에 依하야 解任하고 本報 一月十五日附 夕刊 第三面 社告欄 中 本支局 記者兼會計 金得水는 誤植이기 玆에 訂正하오니 愛讀諸位는 以此 照亮하소서
朝鮮日報 茂朱支局 白



啄木 投稿歡迎 (小品文 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離婚은絕對不可한가

◇時代가 變遷함을 따러 낡음으로부터 새 것을 엇고 새 것이 낡으면 다시 새 것이 잇다 그러나 낡음을 보는 가운데 『長』을 取하고 『短』은 棄할 것이다 그러면 過去 우리의 家庭組織을 한번 살펴보자 『男子는 居外而不言內하고 女子는 居內而不言外』라 하엿스니 이것이 엇지 實生活에 合하지 못하는 『短』이 아니며 惡風이 아니랴!

◇마치 洪水가 한번 지낸 後에오 히려 餘害가 잇는것과 가티 時代思潮가 轉換하는 이때에 우리 靑年界에 一大苦痛을 주는 것은 婚姻問題이다

◇世事에 沒理解한 父老들은 男女性의 合致如何는 不問에 付하고 早婚이 아니면 強制結婚을 식혀서 『바아지』를 마추는 格으로 背馳가 되야 가티 生活할수 업다는 靑年男女의 끌어오르는 血氣를 『糟糠之妻는 不下堂』이나 『七去之惡』에니 하는 因襲으로 抑壓을 일삼으니 畢竟 그 靑年은 그를 咀呪하고 그를 苦悶하다가 甚하면 自殺 그러치 아니하면 落伍者가 되야 甚한 者는 酒肆靑樓에 몸을 던저 放浪生活을 짓게 되니 그 影響이 一般社會에 波及하는지라 이 엇지 一家의 不幸뿐이랴!

◇夫婦가 不和함으로 家庭이 和平치 못하며 따러서 社會가 不安하니 父老들이여! 이 重且大한 結婚問題를 엇지 等閑히 할것이랴 집히 생각하라

◇『돈』곡식을 『밧』에 심으고 『밧』곡식을 『돈』에 심으면 그 成熟을 보지 못할 것은 理의 當然함이다 그러나 나는 덥허노코 無條件으로 新女性의 틀에 머리에 黨醉되여 舊女性과 因襲을 排斥한다는 것은 決코 아니다 사람의 新舊는 莫論하고 『人格』과 『사랑』을 爲主하자는 말이다

◇아ㅅ가운 靑年男女를 不平속에 埋葬하는 것보다 차라리 不和한 夫婦는 서로 離婚하야 各各 理想을 차저 和合한 生活을 지으라 함이다 (西湖C生)

第一回西朝鮮蹴球大會

日時 三月二十六日、二十七日 兩日間
場所 眞池洞普通學校運動場
申請期限 三月二十五日正午까지 修養靑年會로
抽籤 三月二十五日 午後八時
賞品 優勝旗 其外若干
參加金 少年團二圓、靑年團參圓
主催 眞池洞修養靑年會
後援 朝鮮日報社 鎭南浦支局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Friday, Mar. 19th, 1926.

THE AMERICAN PRESS
By Don C. Seitz in The Outlook.

VII

To meet dried-fish competition editors have been swept off their feet and have followed the false gods to their own moral destruction. Their business managers are of the sort who are able to only sell circulation, and not results. The buying power of the mass has become the fetish of the advertiser and not the buying power of the individual. Yet where will you find two more successful newspapers than the New York "Times" or the Boston "Transcript," both of which have sturdily refused to be swept from off their f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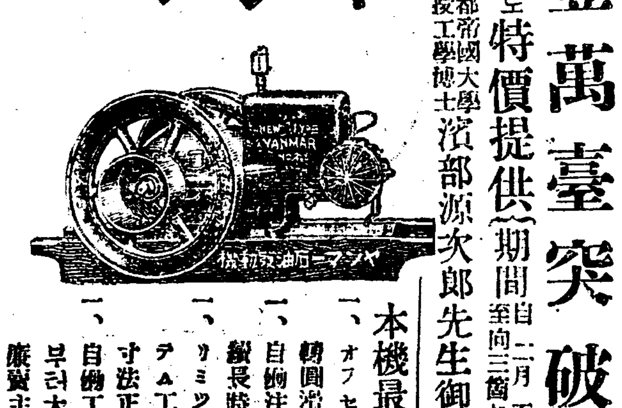
The ready apology for this sort of recalcitrance is that "people are no longer influenced by editorials," which is not true. The editorials are no longer influential because they have no force behind them, no potential purpose, no punch. The study is how to mix milk and water rather than blood and iron. The greater a newspaper's circulation, the weaker its editorial policy is certain to be, perhaps on the theory that there are just so many more people whose feelings must not be injured. The management seems deliberately to strive in a colorless indirection, instead of glorying in its strength.

英文欄 米國의新聞 (七)

ヤンマー (オフセツト式)

祝 안마ー 發動機販賣數 壹萬臺突破 記念으로 特價提供 (期間 自二月五日 至向三箇月間)

京都帝國大學教授工學博士 濱部源次郎先生御指導



本機最大特長
一、オフセツト式으로 運轉圓滑、震動皆無
一、自働注油裝置로 長時間運轉可適
一、ミミツトゲージシステム工作法에 依하야 寸法正確 各部互換式
一、自働工作專門機械로부터 大量生產、親切廉賣主義

農林省比較審查 最高位入選

型錄進呈◇特約店募集

山岡發動機京城支店 京城南大門通一ノ二二 電話長光化門一三六番・振替京城一一五二五番

特約店 京城府 曾我商店出張所 忠南公州 瀧川支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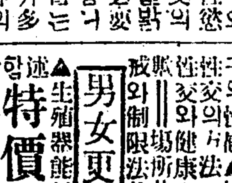
音樂學生募集 新學期 四月五日 教授開始
바이올린科 二十八、피아노、聲樂、만돌린、風琴科 各五人
(規則書要郵券二錢) 西大門町一ノ五〇 府樂會

●性學大家 澤田順次郎先生著 (四六判 背革裝函入)

男女 性慾及性交의新研究

性에 煩悶하는 靑年男女여 一讀解決의 要得하라

◎性慾은 人類의 本能으로 性交는 人生의 最大快樂이며 天의 使命이오 아울너 人生의 基礎이니 完全히 함에는 먼저 性慾及性交의 眞理를 밝힘이 必要가 잇슴니다 本書는 著者가 多年의 研究를 發表한 것인데 內容의 充實 說明의 懇切하야 누구던지 그 眞理를 理解할수 잇는 近代의 名著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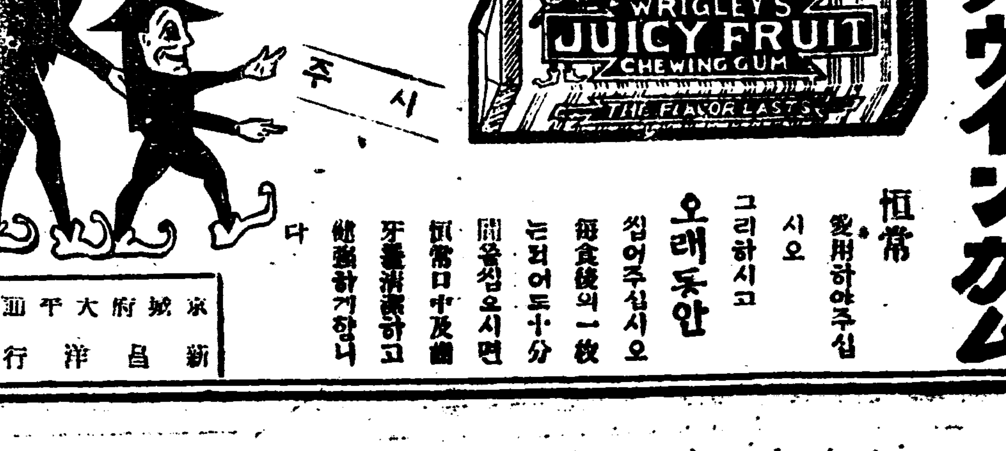
(內容의 一部) ▲性交의 意義 ▲性慾과 性愛 ▲性感이란 무엇 ▲性交와 性感 ▲生殖慾 ▲性交의 方法 ▲女子의 性感 ▲性感異狀과 그 療法 ▲性交와 健康 ▲結婚初夜의 注意 ▲性交의 年齡 ▲性交의 制限法 ▲場所 ▲其他 ▲性交에 對한 警戒

附錄 男女更少年法 ▲生殖器能의 老衰自宅療法을 詳述

特價 金壹圓五拾錢

東京 麻布區富士見町六 正文社 本店 振替東京 壹五八番

リグレーチウインガム



恒常 愛用하야주십시오 그리하시고 오래동안 씹어주십시오 每食後의 一枚는 더어도 十分間 꼭 씹으시면 恒常 口中을 爽快하고 牙齒를 淸潔하게 하고 健康하게 하나니다

京城府大平通 新昌洋行

民大促成運動

그동안 현재시변으로 하야 막혓던 운동을 다시 열기로

조선민립대학의 긔성운동(民立大學期成運動)이 한번 넘어난 뒤로 해내 해외 동포들은 하고 일시에 모다 향응하야 그의 긔세가 자못 농장한 바 잇든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의 긔억이 아즉 새로운 바이어니와 각 디방에 디방부(地方部)가 설립되던 것이 백여곳이오 모든 사상으로는 이백만을 넘는 기금의 의연승낙이 잇섯다가 그간 여러가지 현재시변과 기타의 방해에 인하야 그 운동이 정돈되지 벌서 수삼년에 이 사업에 종사하든 이는 물론이오 일반 민중들까지도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든 바어니와 벌서 월내 각 방면 유지의 사이에 압선하는 이가 잇서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운동은 확실한 결과를 보도록 속진할 필요가 잇다하야 기간 수삼차의 회합을 거듭하엿고 민립대학 긔성회 집행위원회(民大期成會執行委員會)편의 의향과 방침을 알어볼 필요가 잇다하야 리종린(李鍾麟) 박승빈(朴勝彬) 구자옥(具滋玉) 최원순(崔元淳) 안재홍(安在鴻) 한긔악(韓基岳) 제씨를 대표로 교섭케 하엿든 바 긔성회 편과도 의사가 대개 소통되어 추후로 그 실행 방법을 신중히 강구한 결과 아즉도 디방 인사의 의향을 알어볼 필요가 잇다하야 지금부터는 디방 인사의 의향을 뭇기로 하고 형편되는 대로 속진운동을 단행하리라는데 홍성설(洪性卨) 리갑성(李甲成) 제씨는 이 사업의 촉성을 더욱 열성 강구하는 중이라더라

千餘債金을 宕減한 徐氏

칭송이 자자하다

전남 광양(光陽)읍내에 잇는 리천서씨(利川徐氏)가 만히 살든 현인데 천자에 족보(族譜)를 간행하느라고 고흥군 동강면 유둔리(高興郡東江面油屯里) 서화일(徐和日)씨에게서 현금 삼천원을 차용하얏는데 서씨들은 가난하야 그 돈을 잘 갑지 못하얏든 바 요전에 전긔 서화일씨의 아들 서긔호(徐璣浩)씨가 그 돈을 바드러 광양에 와서 가서 씨 일반의 지내는 형편을 보고 몰연히 그 돈을 바드려다가는 밧지도 못하고 일가 간의 정의만 상하기 쉽다하야 남은 채금 이천원 속에서 칠백원만 밧고 남아지는 탕감하얏슴으로 칭찬이 자자하다더라(순천)

藤田과 對抗코자 大峙樵夫會組織

리민일반의 연고림야를 독차지 후에 소초도 금지

동래군 사하면 대티리(東萊郡沙下面大峙里)의 일백오십호 리민은 지금까지 등뎐(藤田)이란 일본인이 머무 바든 연고림(緣故林)에서 소초(燒草)를 비여 오든 바 근일에 와서 전긔 등뎐으로부터 사소한 리유로 나무 비기를 금하게 되엿슴으로 그러치 안아도 죽을 지경이든 리민들로서 절단코 참다 할 수 업는 이 문데를 이대로 버려둘 수 업다하야 지난 십사일 오후에 리민대회를 열어 여러가지로 대책을 강구한 결과 좌우간 동리에서 초부회(樵夫會)를 조직하야 단데의 힘을 빌어 교섭하기로 결의하엿다는데 듯건대 전긔 연고림은 과거에 동리에서 관할하여 오든 것으로서 수년 전 계 동리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일인 등뎐이 머무신청하야 허가를 밧게 되엿슴으로 동리에서는 허가의 온 기를 운동하엿스나 여가 이미 느저 일우지 못하고 할일업시 소초(燒草)나마 비여 쓰게 하라고 교섭하야 이래 그와 가티 년년이 비여 오든 것이라더라(부산)

昌德宮殿下 誕辰奉祝宴

오는 이십오일에

오는 이십오일은 리왕뎐하(李王殿下) 오십이회의 어탄신임으로 창덕궁(昌德宮)에서는 례년과 가티 내뎐에서 봉축연(奉祝宴)을 개최할 예뎡이라더라

◇가극음악대회광경……(작은 조간긔사 참조)

詐欺指令으로

발각되야 고소를 당햇다

평안북도 토목과원 림면묘(林田某)는 작년 사월경 정리세에 자긔 부하로 사용하든 공부 김준하(金俊河)가 토목과에서 회직당하게 되엿던 것을 그 토목과에 가려 일보는 김창룡(金昌龍)(二三)이가 회직당하게 되엿다가 몰려두며 가지고 저녁 십일에야 회직케 하야 여든 바 지난 십이일에야 그러한 사실을 발견한 김창룡은 즉시 신의주 디방법원에 고소를 데기하야 이래 취됴중이든 바 전긔 림면은 토목과원의 중재로 현금 백원을 김창룡에게 주어 사화교섭을 하고자 하얏스나 김창룡은 단연 거절하엿다더라(신의주)

松峴에 棄兒

십칠일 오후 세시반경에 시내 송현동(松峴洞) 삼십칠번디 리봉근(李鳳根)씨의 집문압헤는 나흔지 약 한달되어 보이는 계집아이 한아를 버린 것이 …… 보이는 계집아이 한 …… 여겨 방금 …… 더라

荷馬車에 轢傷

인천룡동네거리에서

지난 십칠일 오후 두시가량 하야 부천군 다주면 사충리(富川郡多朱面士忠里) 안춘선(安春先)이가 자긔의 소유 마차에 벼(正租)를 잔득 싣고 인천(仁川)축항으로부터 룡동네거리 길로 향하야 오든 중 마츰 인천 화평리(仁川花平里) 삼백오십칠번디 김성호(金成鎬)의 모친 최씨(崔氏)가 지나다가 전긔 마차에 치여 일대 소동을 이르키어 피해자를 인제의원(仁濟醫院)으로 업어다가 응급수당을 하얏는 바 상처는 족부(足部)에 륙상(轢傷)을 당한 바로 인긔 완치되기까지는 일주일 이상을 요하리라더라(인천)

金世顯을 誘引한 挾雜輩檢擧에 活動

각방면에 형사대를 파견

尹富豪庶子問題續報

본지에 긔보한 바의 시내 본정서에 발각된 서자(庶子) 정탐된 데로 부호 윤일병(尹一炳)을 공갈햇다는 사건에 대하야 동서에서는 엄중히 비밀리에서 윤일병과 김현세와 친척관계 또는 그 두 사람의 집에 세를 유인하야 부호 윤일병 지하고 가난하고 늙고 또 우둔한 편으로 그러한 남의 집 비밀을 탐판명코저 묘사를 계속중이며 한속 소환하야 누구의 아들인 것을 가뎡내막을 잘 아는 사람들을 속속 각 방면에 형사대를 파견하야 집세를 공갈취재한 자들을 데포코저 활동을 계속중이나 아직 업다더라 은범죄를 감행한 것이라 하며 상세한 사실내막은 범인을 데포한 뒤에라야 알 수 잇겟슴으로 사건은 장차 엇더케 뎐개될는지 알 수 업다더라

音樂會까지 禁止한 龍山署

그하는 태도를 보면 집회와는 원수인듯

오는 이십일 마포청년회 소년부(麻浦靑年會少年部) 주최로 마포 보통학교에서 춘긔 음악대회를 개최하려고 그 회간부는 각 방면으로 모든 준비를 하엿슬 뿐만 아니라 소할 룡산서(龍山署)에 계출까지 하엿든 바 지난 십칠일 룡산서 고등계(高等係)에서 돌연히 주최자를 호출하야 금지식혓다는데 그 리유는 근일 마포청년회를 불온하다고 감시하는 중이 낫가 그 회 소년부에서 주최하는 음악회까지라도 허가해줄 수 업다는 괴막힐 리유라는 바 마포청년등은 물론 일반 언강청년계에서는 지나간 신인동맹(新人同盟) 발회식을 오래 동안 금지하엿든 룡산서가 또 음악회까지 금지한다는 것은 너무도 경찰의 횡포라고 비난이 자자하다더라

固城에 雙頭蛇

경성동물원에 갓다 팔고자 하는 중이다

경남 고성군 영현면 신분리(慶南固城郡永縣面新盆里) 윤근수(尹近守)의 친권에 산으로 나무하려 가서 머리 들이 잇는 배암을 잡아가지고 집으로 도라왓다는데 그 소문이 원근에 퍼저 엇던 부자는 이백원을 주고 사겟다 하는 사람이 잇다 하며 매일 구경코자 오는 사람이 수십인에 달하얏는 바 인하야 윤근수의 친가족은 깃붐에 차서 배암을 경성동물원(京城動物園)에 가지고 가서 팔작정이라더라(고성)

路柳墻花◇의 안국가 운신하도 不如意한 貞淑의 八字

지나간 반생은 모두가 운율이엇는데 장차올 반생은 과연 엇더한 것일는지

요사이 안성군 읍내면 장긔리(安城郡邑內面場基里)에 잇는 경성관(京城館)이라는 료정(料亭)에는 일본말을 잘하는 기생이 왓다 하야 안성 부랑자 사이에는 한이야기 거리가 되얏는 바 그 기생은 영업허가증이 업다하야 당디 경찰서로부터 손님을 못보게 한다는데 이제 그녀자의 자세한 래력을 듯건대 그는 본적을 경성부 데부동(帝府洞) 일백십삼번디에 둔 함정숙(咸貞淑)이라는 방년 십칠세의

미인으로

여섯살 먹엇슬 쌔에 부친을 여의고 이래 십여년간을 편모(偏母)슬하에서 잘아나 아홉살 먹엇슬 쌔에 모녀학교에 입학하야 공부를 하든 중 원래 총명이 과인하고 재조가 비상한 정숙은 여러 재원(才媛)들 중에서도 항상 성적이 우수하야 여러 선생님들의 총애와 동무들의 존경을 바다가며 풍우를 불계하고 삼년 동안을 통학하얏섯다 그러나 나날이 시들어가는 회옷입은 자의 살림! 더구나 가사를 료리(料理)하는 남자가 업시 되는 대로 지내가는 그의 집은 정숙의 학비를 아모리 하야도 대일 수가 업서

정숙이가

그 학교 삼학년을 수업하고 사회 년에 진급하든 해 봄에 할 수 업시 눈물을 머금은 채 학이란 한마듸를 남기어 노코 교문을 나서게 되얏스니 이것이 그 의 첫재 불행이엇스나 그 모도 이 사정을 짐작하엿스며 그 이후에도 항상 단단일념이 공부만을 희망하는 그는 열네살 먹든 해에도 다시 공부를 하여 보려고 애를 썻스나 다시 …… 어떠한 동긔로 또 다시 공부를 계속하겟다는 생각으로 멀리 일본 동경을 향하야 떠나게 되얏섯다 그러하야 몃해 동안을 동경에 잇스면서 이곳

저곳으로

학교를 차자도 다녓스나 알수 업는 운명의 롱락과 악마의 저희로 공부도 충실히 못하고 엇던 남자에게 뎡조까지 더럽히고는 그대로 버림을 바다 할 수 업시 도로 고향의 몸이 되얏섯든 바 금긔와 서보니 집안의 살림은 자긔 가 동경 가 잇슬 동안보다 더욱 살 수 가 업서서 호구(糊口)도 할 수 업섯다 그리하야 그 놈은 어머니가 밥을 굶고 누은 것을 볼 쌔에 그는 두 눈에서 피 ……

燕岐錦南一境에 民怨漲溢

貧民救濟란 結局日人水谷의 救濟

청부업자란자는삭전도안주고다라나서 일반빈민들은방금긔지사경에이른현상

本意를 無視하는 所謂當局者의 心思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燕岐郡錦南面大平里)에 거주하는 일반 빈민 사이에는 도당국(道當局)과 면사무소 기타 경찰관주재소의 무책임 무성의한 것을 비난하는 동시에 류리걸식할 디경에 이른 사람이 불가승수라는 바 그 내막은 복잡하야 자세한 것을 알 수 업스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

수년래로

연기군 일대에 한재 수재로 실농자가 만홈을 뿐 아니라 실업자가 속출되야 그들은 극한이 도골케 된 상태임으로 도와 군 당국에서 이것을 구제하다 하고 연기군 전의면(全義面)에서 금남면을 경유하야 대뎐군 유성온천(大田郡儒城溫泉)까지 일등 도로를 작년 하간부터 긔공한 바 이 달 말일까지는 대강 완청될 모양으로 그 본의가 빈민을 구제키 위함이엇슴으로 청부업자에게 도급을 주지 안코 직접 인부를 취급하기로 하야 공사에 착수한 것이 어쩌된 바 본의를 거바리고 청부업자에게 주어 청부업자는 부하를 식히어 공사를 진행케 하고

인부임금

은 하로에 만어야 삼십 전 내지 사십 전 밧게 아니 주는 터로 그것도 현금이 아니요 전표로 주어 그것을 매매케 하야 이것에서 다시 얼마식 할인을 하게 하여 오든 바 공사가 얼마 남지 아니 함으로 청부업자의 부하들은 어머로인지 종적을 감추게 됨을 따라 전표를 밧은 인부 임금도 현금과 교환치 못하야 작년 팔부터 수백명식 청부업자의 사무소로 몰려들어 가서 사람을 죽여 라 살려라 하며 아우성을 치더니 도당국자들도 최초 빈민 구제라는 간판을 내세우고 청부업자와 다소간

교섭하야

인부 임금을 지불케 된 모양인데 청부업자 업는 인부들에게 말하되 자긔는 십장(什長)들에게 인부 임금을 전부 지불하엿든 바 십장이 집어먹고 도망갓슴으로 다시 지불치 아니 하여도 관계치 아니 하나 ……

仁川新町에 大火

原因은 調査中、損害는 六千圓

어물시장에서 불이나서 그근처 재지연소하엿다

인천 부신정(仁川府新町) 사십삼번디 조선어시장(朝鮮魚市場)에서 지난 십칠일 새벽 두시반경에 돌연 불이 일어낫섯다는데 그 째 마츰 서북(西北)풍이 맹렬하게 불엇섯슴으로 부근 피물전(果物店)하는 안근성(安根成)집과 그 엽동업자 신정구(申貞九)집 파원태사(元泰舍) 우육상(牛肉商)등 비점에 연소되슴으로 이 급보를 접한 인천 소방대(仁川消防隊)에서는 총출동하야 경사원(決死的) 로력을 한 결과 약 한시간 후에 비로소 진화하엿섯다 하며 원인은 아즉까지도 미상함으로 방금 인천경찰서에서는 비밀 중 수사에 착수 중인데 피해자(被害者)의 총손해액은 약 륙천원(六千圓)이나 되리라더라(인천)

价川郡廳員의 暴行

막어노흔길을 자유로넘고 말리는여부를구타치상

지난 십이일 오후 비서이 십분경에 뎨삼십삼렬차(第三三號列車)가 안주로부터 떠나서 개천역 부근에 일리여서 개천뎡거장 역부 신창모(申昌模)가 안만도로(安滿道路)에다 차단긔(遮斷器)를 나리우고 교통을 금하얏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삼인이 뛰여넘음으로 당무자인 신창모가 왜 막은 곳을 넘어다니느냐고 한즉 나는 개천군령(价川郡廳)에 잇는 김운조(金雲祚)라하면서 관리가 공부(公夫)를 본 엽서 머라 하엿는데 이 삼인은 도로 막은 곳을 넘어 막 막은 곳을 넘어 ……

지난 십이일 오후 …… 본팔로 욕설을 퍼부다옵다시 신창모의 볼기짝을 주먹으로 지름으로 그놈을 대항하랴 할 즉 한팔을 잡어다니며 유도(柔道)로 엉우에 메다침으로 정신을 일코 한참동안 잇다가 이러나 뎡거장으로 가서 그 사유를 고하고 즉시 김운조의 집으로 달려가서 구경군들이 수백명이나 구름모이 듯 모인 가운데서 나오라고 말을 하엿스나 종시 도라 오는 길로 군령에 가서 몰어본즉 아모 유무도 업시 할 수 업시 도라 오는 길로 군령에 고소를 데기하얏는데 이놈 역부들 …… 말이 관명 장으로 넘우도 분이 엇다고 하야 비로소 김운조의 거죄로 고소를 데기 하리라는 바 누구를 물론하고 이를 본 사람은 모다 군령원의 행동을 비난한다더라(개천)

廿四年만에 母子가 相逢

피눈물로헤여졋든부모처자 이십사년만에서로맛나게되

生活難으로 生離死別

전남 강진군 군동면 라천리(全南康津郡郡東面羅川里)사는 배수(裵洙)라는 이는 이십사년 전에 아주 일허버렷든 어머니와 친형(兄)을 맛낫다는데 그 내용을 듯건대 지금으로부터 이십사년 전에 전긔 수동의 아버지와 어머니 가 그전부터 장흥읍 내(長興邑內)에서 남달르게 탐이 쌀한 부부생활을 해왓스나 덤쳐 오는 생활난을 견듸다 못하야 피 눈물을 흘리면서 한 어린 수동이 를 남북으로 갈라 어머니는 수동이를 다리고 우주에 표랑하신 세를 부치고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의 비참한 생활을 하며 뎡처업시 써돌아 다니는 중에 부모형뎨 처자가 서로 죽엇는지 살엇는지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심산사람이 되엿다 행위는 수둥이를 다리고 할 뿐 아니라 엇더케 지내는지 소식이 돈 다 리고 이리저리 단이다가 다행히 십년 전에 전긔 장소에와서 명 색 살림이라고 부처 노코 근근히 지내오든 중 수동이는 취처(娶妻)까지 시키게 되야 가정생활을 일우엇스나 부친은 항상 처자의 생사를 몰라 눈물과 한숨으로써 세월을 보내다가 작년 봄에 이세상을 무참히 떠나고 보니 혈혈단신 인부들의 정상을 생각하야 그 동안 허간식 지불하겟다는 미명으로 종일토록 써가부서지게 집을 지고 겨우 어든 삼십여 전의 품갑을 월여식 두엇다 주고도 그래도 부족하야 이삼내지 사오할식 감한 후 지불하고 그 중에도 이의를 데출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조차 아니 주는 중이며 뎐표를 밧고 잇는 수곡(水谷)이라는 자리한 일반은 도당국과 수곡 사이의 심하야 원성이 창텬하는 중이며 일반 빈민의 현상은 과연 목불인견이라더라(조치원)

음식장사를 하든 사람들도 전부

파산지경

에 이르럿는 바 소위 청부업자라 하는 자는 원래 충청남도 토목국의 중역으로 잇든 수곡(水谷)이라는 자리한

列車正面衝突을

하고 잡힌일인여부계획

경의선(京義線) 고읍역(古邑驛) 역수(驛手)로 재근하는 원정웅(元貞雄)과 일본 웅본시 대강뎡(熊本市大江町) 두에 고평안북도 뎡주군 갈산면(定州郡葛山面)에 거주하는 일본인 포천정인(蒲川正人)(二三)은 지난 이일 밤에 렬차를 넘기기로 하엿든 중에 그 일 오전 두시 삼십분에 올림차와 나림차가 동시에 동당 거장에 도착되리라 할 지음에 그 두렬차가 충돌되게 『포인트』를 기내 러서 두렬차가 도착되기를 다릴 쌔에 역시 동역 역수로 재근하는 리병례(李炳禮)가 발견하고 머경실색하야 『포인트』를 고쳐 두는 것을 본 전긔 일본인 역수 포천정인은 리병례를 란타하지 지 안엇다 하며 다행이 렬차는 충돌되지 아니하엿스나 그 두 사람은 사건의 재판을 밧어 렬차를 일부러 파괴하야 렬차충돌되게 하야 정주법원지청(定州法院支廳)에 송치하엿다더라 다 말이 관련 중 …… 에게 돌관이 되엿슴으로 쥐로 고소를 데기 하엿다더라

金釵强盜

옷고 가는 비녀를 빼가지고 달아나

본적을 중국 산동성 봉래현 정리(中國山東省蓬萊縣) 지고 천(中國 山東省 …)에 두고 현금 시내 고진쾌(高振來)(二八)라는 자는 십칠일 오후 열시경에 시내 서소문뎡(西小門町) 길에서 태평통(太平通) 이뎡목 삼십삼번디에 사는 김(金)씨라는 녀자의 머리에 쏘진 금비녀를 별안간 뒤로 움켜서 빼가지고 도주하는 것을 김씨는 놀라 도적이야 소리를 치스나 그래도 그 자는 귀어히 빼어가지고 서대문서원이 그 소리를 듯고 마츰 행순하든 서대문서원이 검거하얏다더라

不義子壓殺犯

징역이 개년에 언도

지난 십륙일에 대구 디방법원에서는 금천(金川) 재판장 주재하에 나히 삼십이 될락말락한 미인을 압헤 세워노코 엄중히 훈유한 후 징역이 개년을 언도한 바 그 사건의 내용을 듯건대 녀자는 상주군 함창면 신덕리 장죽뎐(尙州郡咸昌面新德里張竹田)(二九)인 바 재작년 륙칠월경에 자긔 집 고용인과 정을 비밀히 통하야 오다가 가블러 오더니 작년 구월경에 옥동을 분만하얏는데 세상 사람이 붓그럽다 하야 나흔 즉시에 요(褥)를 덥허 죽이엿든 바 그것이 발각되야 포되여 이래 엄중히 취됴를 밧고 공판을 하야 그와 가티 언도가 되얏다 이라더라(대구)

价川火田民의 林野耕作爭奪戰

원래는 개인의 문데엿스나 결국은 리민의 문데가 되어

평남 개천군 외동면 길상리(价川郡外東面吉祥里)에서는 근일에 만치 안은 림야(林野)를 가지고 크게 싸홈이 생겨서 한 동리가 써드는 일대 문데가 일어낫다는 바 이제 그 내용을 알어본 즉 수년 전에 건지동(乾芝洞)이란 산의 소유자 정봉선(鄭鳳善)이가 한 동리에 사는 김국현(金國賢)에게 전긔 산림의 반분을 삼백오십원에 매도한 후 김씨의 매수한 부분만을 이뎐수속을 하라고 인장을 김국현에게 주엇더니 이 긔회를 리용하야 김국현은 전부자긔의 소유로 만들고자 하야 그럼 야전부를 자긔 명의로 변경하엿든 것이 이즈음에야 발각이 되야 량방이 서로 자긔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크게 싸홈이 생긴 것인데 그동리주민(住民)들은 이것이 개인에 관한 문데가 아니라 우리 전반 동리에게 리해가 잇는 중대문데라 하고 구장과 및 동리 주민 유지가 사십여명이 날인서명하야 그 곳주재소에 증명원(證明願)까지 데출하엿다는데 장차의 문데가 여하히 귀착되려는지 그 곳 화뎐민들은 주목하는 중이라 한다더라(개천)

協成神學校卒業生一同이 昨十八日本社作業狀況을 見學

人肉商被捉

유부녀를 꾀어 창기로 팔아먹어

손발이 닳으며 역시 표랑생활을 계속하다가 주소로 못잇는 아들의 동생을 차질가하고 그들의 고향인 장흥읍내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크게 하다가 그 곳에서 산다는 소문을 듯고 참 인가 거짓인가 의심하면서도 찾아본 즉 이십사년 동안 분명한 지라 갓붐 을 아들과 동생이 부둥켜안고 그리든 회포를 이너 얼거서 서로 붓들고 통곡하며 나무쌔리와 풀님을 쓰더 먹을 지 라도 길이길이 떠나지 말자 하얏다 더라(목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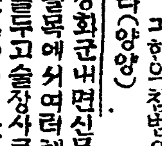
광주군 도척면 보곡리(廣州郡道尺面) ……

病魔와 飢寒으로 안치채죽어

양양군 …… 오전 열시에 …… 어덜가요……

람파휘

▲강화군 내면 신문리 안골목에서 여러 해 동안 안물두고 술장사로 유명한 김○○이란 자의 집으로 ▲지난 십사일 켜녁에 웁내 모모 인사 가술을 먹으러 갓섯다 는데 ▲그 중에 엇던 한분이 목이 마르다고 물을 청하얏더니 주인되는 자의 하는 말이 쾌한 어조로 술집에서 물을 내 면 외상술 만 나간다고 결국주지 아니하야 어더 마시지 못하고 ▲무참히 시듸신 술 반 사 먹고 도라왓다 한다 ▲소위 음식 영업자 가 되여서 그 쌔위 짓을 하게 하는 것도 거긔가서 술을 괴이고 술을 마시는 이들이 만 흐며 ▲압으로 이후부터는 술 버 고 시 더 목 젓이 올 드 라 도 아니 들 가 도 록 하 야 그 싸위 버릇장이를 고쳐 놋는 것이 엇덜가요……



衛生相談部에就하야 我社衛生相談部는醫學博士小田俊三先生擔任下에無料로呼吸器病에는勿論總히病氣並一般保健衛生上의御質問에相談部施封書로願합니다

參天セキ藥

삼텬기침약

三日分五十七錢、日分壹圓 送料各二錢 信用잇는各地藥店에잇소

大阪市北濱一丁目 參天堂株式會社 振替貯金大阪三六六番

一 寒氣와갓치、氣管枝加答兒、喘息、百日咳、肺結核感冒等의呼吸器病에기침과가래의苦痛밧는사람이만케되엿습니다。

二 此等苦惱는純學理로立脚해서新使命으로써産出된參天기침藥에依하야괴롭지안케救할수가잇습니다。

三 參天기침藥은如何이頑固한기침에도確信을가지고推奬할수잇는家庭新藥으로서現在醫界의賞用處한鎭咳祛痰新藥산로이드와그集成을同一히한것이올시다

四 산로이드는我社研究部가瀨良醫學博士指導下에創見하고諏訪、大野、青山의三醫學博士를비로소多數臨床醫家實驗推奬을得한것임으로이것과同一集成의參天기침藥은家庭治療藥으로가장進步된것이올시다

五 臨床醫學界에對한權威잇는多數大家의臨床實驗報告書及說明書를無料送呈합니다。

特長 參天기침藥은모르휘네、고데인等의麻醉劑、또는吐根、세네가의강한사흐닌劑와달나서 全혀副作用업시一劑로서能히鎭咳와祛痰의兩目的을達하는것은本劑創見의要點이올시다。